

1. 서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다양한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거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글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거시경제지표들을 통해 2022년 전쟁 이후의 중앙아시아 경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경제에 대한 전쟁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2022년의 중앙아시아 대외 교역은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 중앙아시아 경제를 살펴보고, 3장에서 중앙아시아의 교역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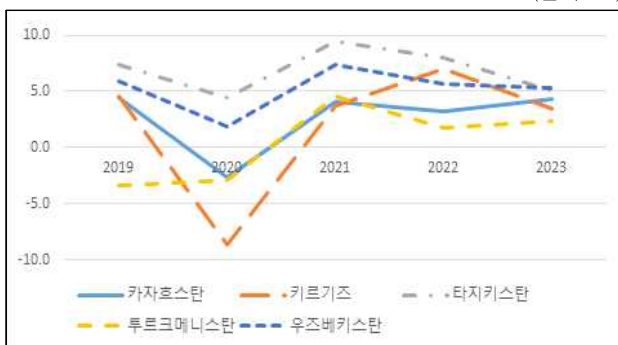
2.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 변동의 특징

1) 경제 변동과 정책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 2023년 4월 발표된 IMF World Economic Outlook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2021년 대비 하락했으며, 2023년에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소비자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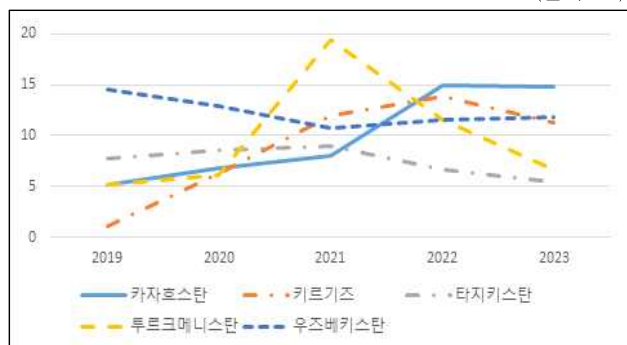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그림 2] 중앙아시아 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 다만, OECD와 세계은행(Global Economic Prospects), EBRD 등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중앙아시아 경제가 전쟁 발발 초기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2022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하고 있음.¹⁾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에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세계 평균이나 신흥국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1) OECD. Weathering economic storms in Central Asia. November 2022.

[표 1] 세계 및 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20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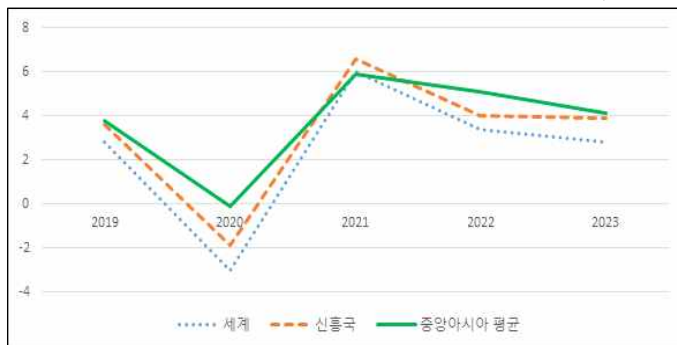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세계	2.8	-3.0	6.0	3.4	2.8
신흥국	3.6	-1.9	6.6	4.0	3.9
중앙아시아 평균	3.8	-0.1	5.9	5.1	4.1
카자흐스탄	4.5	-2.6	4.1	3.2	4.3
키르기즈	4.6	-8.6	3.7	7.0	3.5
타지키스탄	7.4	4.4	9.4	8.0	5.0
투르크메니스탄	-3.4	-2.9	4.6	1.8	2.3
우즈베키스탄	5.9	1.9	7.4	5.7	5.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그림 3] 세계·신흥국·중앙아시아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경제의 안정세는 에너지 수출 증가, 해외이주 노동자로부터의 송금액 증가, 국내소비 증가 등의 결과에 따른 것임.²⁾ 에너지 수출국의 경우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액이 많은 국가의 경우 루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송금액이 증가하였음. 또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에서는 공공 부문 임금 인상과 러시아로부터의 개인·기업 이주에 따라 지역 전반의 소비가 증대한 것으로 평가됨.

[표 2] 국제기구들이 분석한 중앙아시아 경제 안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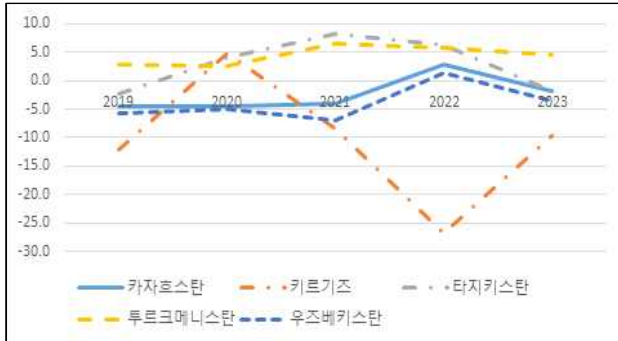
항목	내 용	해당 국가
교역 증가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	카자흐스탄
송금 증가	러시아 루블화 상승에 따른 이주노동자 송금액 증가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비 증가	공공 부문 임금 인상 및 러시아 이주민 유입에 따른 소비 증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경상수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으며,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크게 증가한 키르기즈를 제외한 4개국이 모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재정수지의 경우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영 에너지 수출기업의 수입액 증가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비수출국인 다른 국가들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³⁾

2) OECD. Weathering economic storms in Central Asia. November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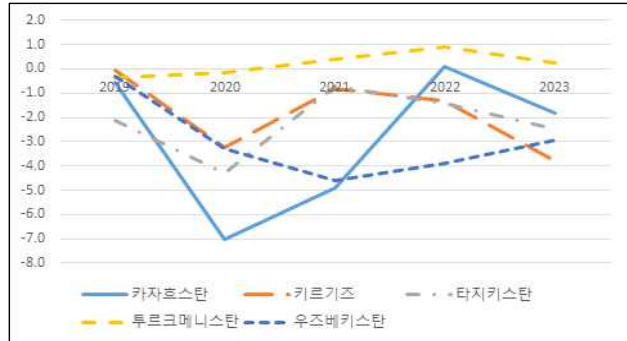
3)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석유 부문의 정부 조세수입(소득세, 광물추출세 등)은 2021년 61억 1,000만 달러에서 2022년 138억 7,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함. <https://www.reuters.com> (2023.5.2.)

[그림 4] 중앙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그림 5] 중앙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향후 중앙아시아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물가 상승을 지목하고 있음. 2023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이와 관련된 공급망 불안 등의 요인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각국의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에너지 수입국들인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의 경우 향후 에너지 국제가격의 상승 시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우려됨.
- 아울러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장기 경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외 경제협력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또한 기업환경의 지속적인 개혁과 녹색전환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역내 인프라 통합과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통합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제안함.

2) 환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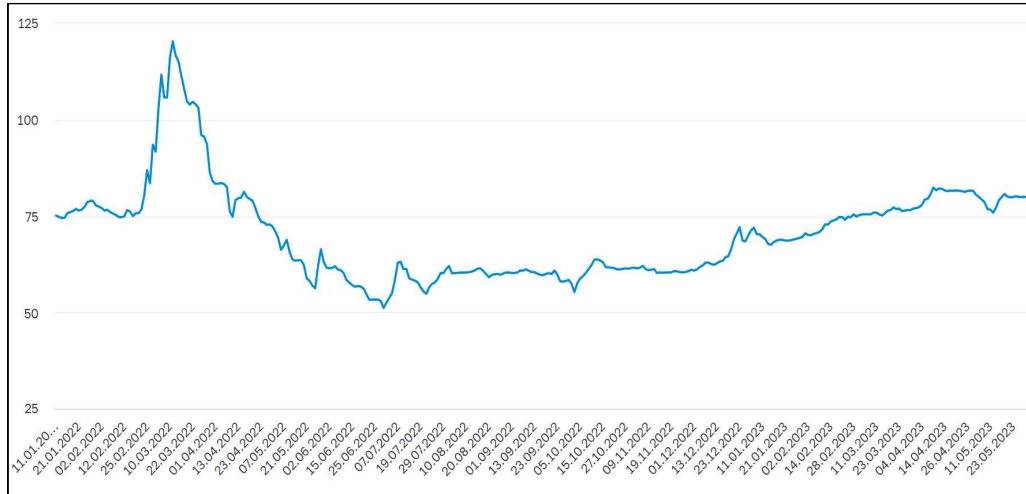
- (환율)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 통화의 환율은 급격히 상승(해당 통화의 가치 하락)했으나, 이후 점차로 하락하여 안정되었음.
- 러시아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은 기존에도 러시아 루블화 환율과 연동되어 변화했으며, 2022년에도 러시아 루블화의 변동과 유사하게 변화하였음.
 - * 러시아 루블화 환율은 2022년 연초 달러당 75.1루블에서 시작하여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3월 11일 120.4루블까지 상승하였으나 4월 이후 하락하였으며, 연말에는 달러당 70.3루블을 기록함. 2023년 들어서는 다소 상승 추세를 보여, 5월 말에는 달러당 80.0루블을 기록하였음.
- 카자흐스탄 텡게화 환율은 2022년 초의 달러당 431.8텡게에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달러당 512.19텡게(3월 16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연말에는 달러당 462.65텡게를 기록함. 2023년 5월 말에는 더욱 하락하여 달러당 445텡게에 머물렀음.
- 우즈베키스탄 솜화 환율은 2022년 초의 달러당 10,813솜에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달러당 11,571솜(3월 18일)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하락하여 연말에는 달러당 11,222솜을 기록함. 솜화 환율은 2023년 들어 다소 상승 추세이며, 5월 말 현재 11,420솜을 기록하였음.
- 키르기즈 솜화 환율은 전쟁 이전에 달러 당 85솜에서 2022년 3월 16일에는 105솜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연말에는 85.7솜을 기록하였고, 2023년 5월 말에는 달러당 87.5솜을 기록하였음.
- 타지키스탄 소모니화 환율은 전쟁 이전 달러당 11.3소모니에서 13.03소모니(3월 18일)까지 상승하였으나, 연말에는 10.2소모니를 기록함. 2023년 2월 이후에는 다소 상승하여 5월 말 달러당 10.7소모니

를 기록하였음.

-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마나트화 환율은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달러당 3.5 마나트가 유지되고 있음.

[그림 6] 러시아 루블화 환율 추이(2022.1~20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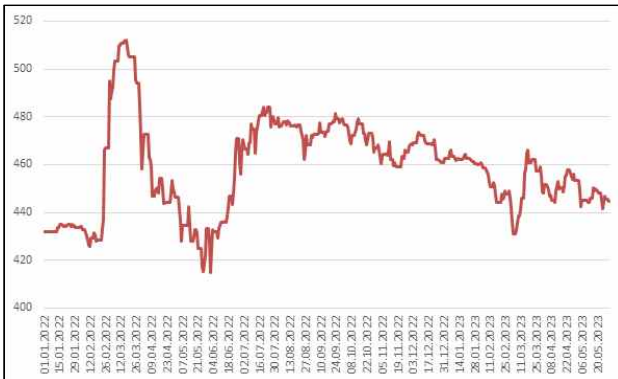
(단위: 루블/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그림 7] 카자흐스탄 텡게화 환율 추이(2022.1~20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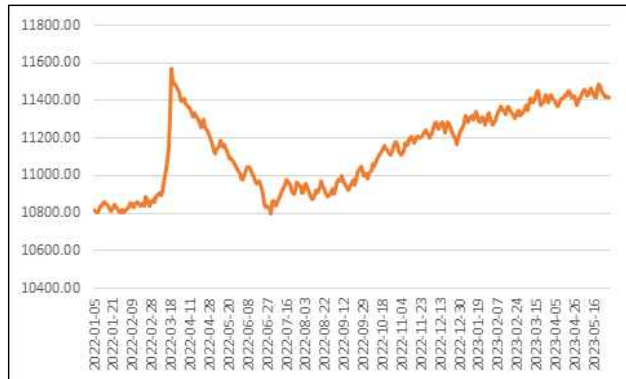
(단위: 텡게/달러)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그림 8] 우즈베키스탄 솜화 환율 추이(2022.1~20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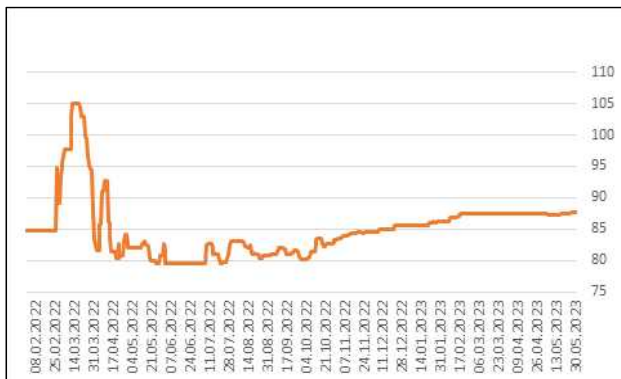
(단위: 솜/달러)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그림 9] 키르기즈 솜화 환율 추이(2022.1~20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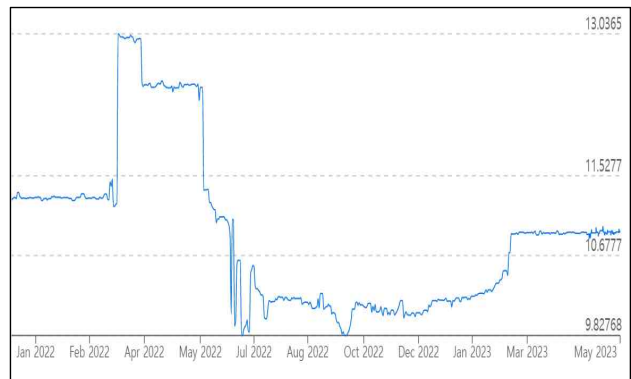
(단위: 솜/달러)



자료: 키르기즈 중앙은행

[그림 10] 타지키스탄 소모니화 환율 추이(2022.1~2023.5)

(단위: 소모니/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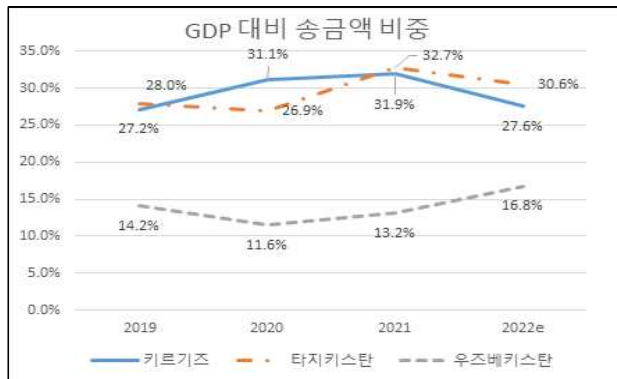


자료: www.xe.com

3) 러시아의 비중이 높은 송금액 유입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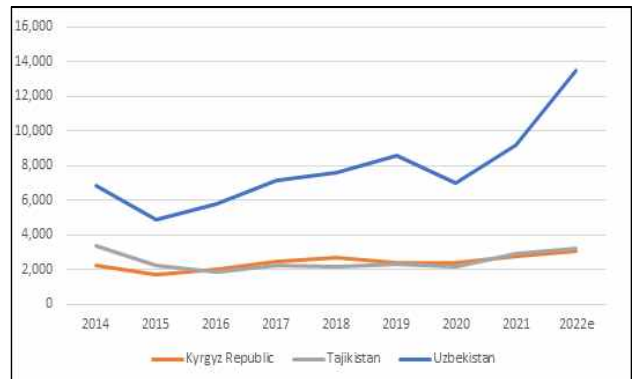
- 202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유입된 해외이주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GDP 대비 송금액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유입되는 해외 송금액의 증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러시아 루블화 가치 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⁴⁾
- 2022년 중앙아시아 전체의 해외 유입송금액은 201.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2021년의 전년 대비 10% 증가(152.23억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음.
- GDP 대비 송금액 비중은 키르기즈가 2021년 31.9%에서 2022년에는 27.6%, 타지키스탄은 2021년 32.7%에서 2022년에는 30.6%로 다소 하락하였음.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13.2%에서 2022년에는 16.8%로 상승하였음.

[그림 11] 중앙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송금액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세계은행 2022년 11월(송금액);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GDP)

[그림 12] 중앙아시아 각국의 송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https://www.ceicdata.com>

[표 3] 중앙아시아 각국의 송금액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a
카자흐스탄	401	294	384	560	618	506	374	310	370
키르기즈	2,243	1,688	1,995	2,486	2,689	2,411	2,423	2,792	3,050
타지키스탄	3,384	2,259	1,867	2,237	2,183	2,322	2,187	2,922	3,200
투르크메니스탄	31	16	8	5	1	2	2	1	1
우즈베키스탄	6,815	4,843	5,795	7,130	7,610	8,546	6,980	9,198	13,500
합계	12,874	9,100	10,049	12,419	13,101	13,786	11,966	15,223	20,121

자료: 세계은행 2022년 11월

4) 외국인 투자

-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유입도 크게 증가함.
- 카자흐스탄은 2022년 FDI가 280억 달러로 2021년의 238억 달러에서 17.7% 증가함. 2012년 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289억 달러의 FDI 유입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함.
- 투자국으로는 네덜란드 83억 달러, 미국 51억 달러, 스위스 28억 달러, 벨기에 16억 달러, 중국 14억

4) <https://www.worldbank.org>

달러 등을 기록했으며, 지역으로는 아티라우 주에 83억 달러, 알마티에 76억 달러가 집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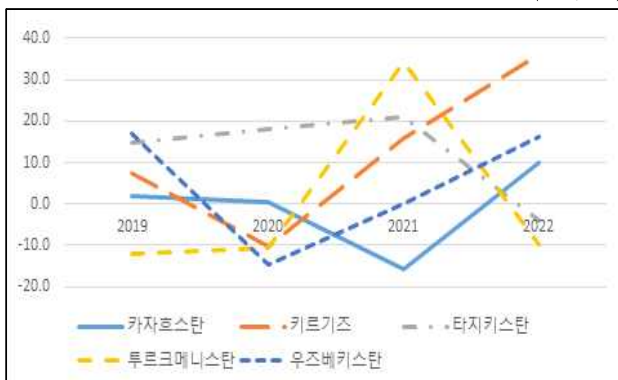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과 해외로부터의 차입액은 2017년 25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85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자금이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7%에서 35.4%로 증가하였음.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는 2017년 5,517개에서 2022년에는 15,801개로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유통 30.5%, 제조업 27.5%, 건설업 8.0%, 농업 4.8% 등임.⁵⁾

3. 중앙아시아의 전반적인 교역의 변동

- 202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품교역에서 전체적으로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이 모두 상승하였음.
- 수출에서는 2022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플러스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21년의 수출증가율이 높았던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기록함.
- 수입에서는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플러스 수입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함.
- 전반적으로 202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수출입 증가율은 세계 평균이나 신흥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13] 중앙아시아 각국의 상품수출 증가율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그림 14] 중앙아시아 각국의 상품수입 증가율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표 4] 세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품 수출증가율

(단위: %)

지역	2019	2020	2021	2022
전 세계	0.1	-4.2	10.7	2.6
신흥국	-0.6	-1.2	11.8	1.5
카자흐스탄	1.9	0.4	-15.7	9.8
키르기즈	7.4	-10.1	15.8	35.9
타지키스탄	14.8	18.1	21.1	-4.0
투르크메니스탄	-11.9	-10.7	34.3	-9.7
우즈베키스탄	17.1	-14.4	0.2	16.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5) <https://central-asia.news> 2023.2.8; <https://upl.uz> 2023.2.6.

[표 5] 세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품수입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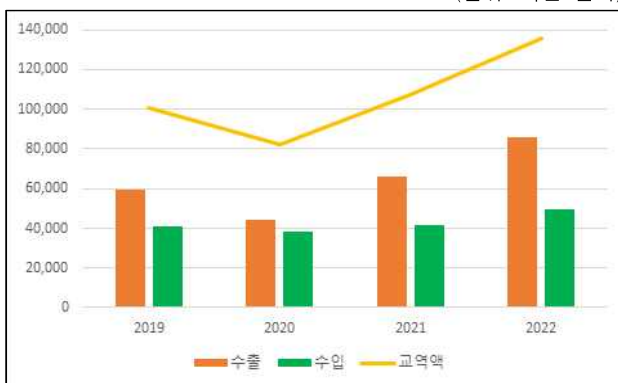
지역	2019	2020	2021	2022
전 세계	0.3	-5.7	11.5	4.0
신흥국	-0.1	-5.7	12.3	2.1
카자흐스탄	18.2	-23.9	-8.6	12.4
키르기즈	-3.2	-21.6	23.8	27.4
타지키스탄	8.6	-1.7	23.1	13.3
투르크메니스탄	9.0	4.9	-1.1	2.4
우즈베키스탄	16.0	-8.4	4.2	14.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 (카자흐스탄) 2022년 교역액은 전년 대비 32.1% 증가한 1,344억 달러로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음. 수출은 8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9% 증가했으며, 수입은 4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8% 증가하였고, 상품수지 흑자 규모도 증가했음.⁶⁾
- 2022년의 수출액 증가는 주요 수출품인 원유, 광물, 밀 등의 국제가격 상승에 기인함. 주요 수출품은 석유, 가스 및 석유제품(61.4%), 금속 및 금속제품(14%), 기계 및 설비(4.6%)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설비(40.5%),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16.7%), 금속 및 금속제품(10.2%) 등임.⁷⁾
- 원유 수출액은 2021년 310억 달러(6,550만 톤⁸⁾)에서 2022년에는 468억 달러(6,500만 톤)로 증가하였음.⁹⁾ 광물 수출의 경우 구리 37억 달러(전년 대비 15% 증가), 합금철 34억 달러(전년 대비 51% 증가), 우라늄 34억 달러(전년 대비 95% 증가) 등을 기록함.¹⁰⁾
- 최대 교역국은 러시아(19.4%)이며, 중국(18.0%)이 뒤를 잇고 있음. 2022년 국가별 수출입 비중은 수출의 경우 이탈리아 16.4%, 중국 15.6%, 러시아 10.6%, 네덜란드 6.5%, 튀르키예 5.6%, 한국 5.4%이며, 수입의 경우 러시아 34.7%, 중국 21.9%, 독일 4.5%, 미국 3.8, 튀르키예 3.2%, 한국 3.1%임.¹¹⁾

[그림 15] 카자흐스탄의 교역액 추이(2019~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BOP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교역액은 2022년에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교역 증

6) <https://stat.gov.kz> 카자흐스탄 통계청

7) <https://stat.gov.kz> 카자흐스탄 통계청

8) 2022년 카자흐스탄산 원유 수출 가격은 2021년 톤당 473달러에서 2022년 720달러로 급등했음.

9) <https://www.reuters.com> (2023.5.2.)

10) <https://economy.kz> 이외에 석유제품이 73%, 석탄이 2.4배, 아연이 43% 수출액이 상승했으며, 밀의 수출액도 37% 증가함.

11) <https://stat.gov.kz> 카자흐스탄 통계청

가율도 2021년 12.7%, 2022년 13.1%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2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22.6% 증가한 43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¹²⁾ 수출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71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23.7% 증가한 283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음.
- 수출의 경우 천연가스(전년 대비 25.4% 증가), 곡물(전년 대비 19.7% 증가), 야채 및 과일(전년 대비 19.7% 증가) 등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수입의 경우 곡물(전년 대비 28.9% 증가), 식료품(전년 대비 67.6% 증가) 등의 증가율이 높았음.
- 국가별 교역 비중은 러시아 18.6%(93억 달러), 중국 17.8%(89억 달러), 카자흐스탄 9.2%(46억 달러), 튀르키예 6.4%(32억 달러), 한국 4.7%(2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¹³⁾
- 국가별 수출입 비중에서는 수출의 경우 러시아 18.1%(31억 달러), 중국 14.6%(25억 달러), 튀르키예 8.7%(15억 달러)이며, 수입의 경우 중국 22.6%(64억 달러), 러시아 21.9%(62억 달러), 카자흐스탄 11.3%(32억 달러)임.

[그림 17] 우즈베키스탄의 교역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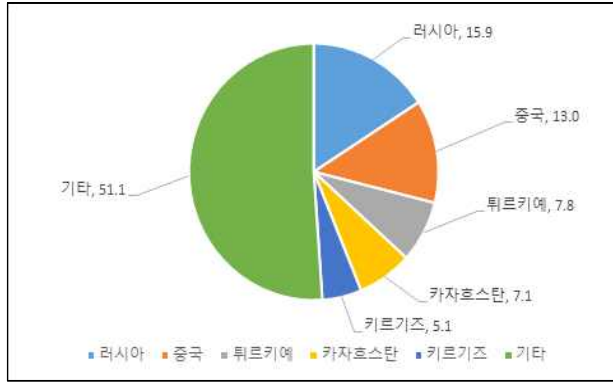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12) IMF

13) <https://uz.sputniknews.ru> (2022.1.24)

[그림 18]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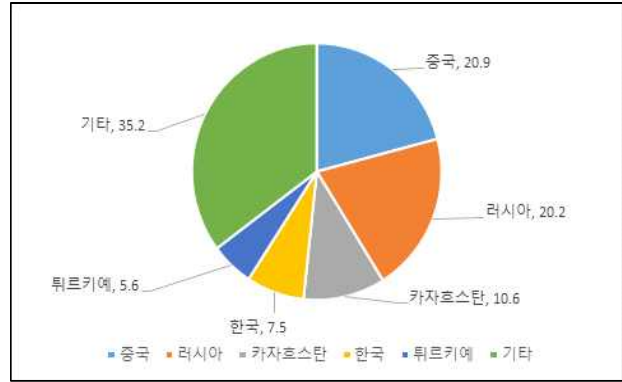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그림 19]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입국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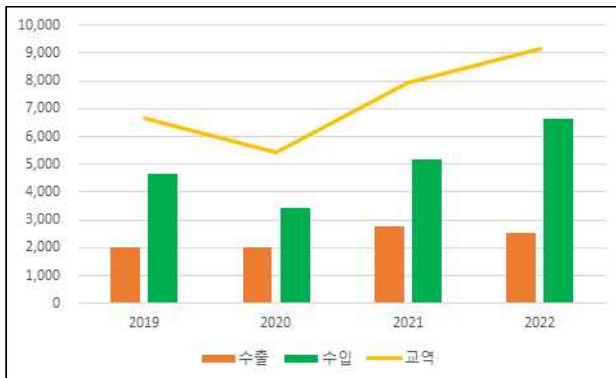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2022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액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2022년 타지키스탄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키르기즈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15.0%,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11.1% 각각 증가하였음.¹⁴⁾
-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는 수입액이 증가하고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에너지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액이 증가하고 수입액이 감소하였음.

[그림 20] 키르기즈의 교역액 추이(2019~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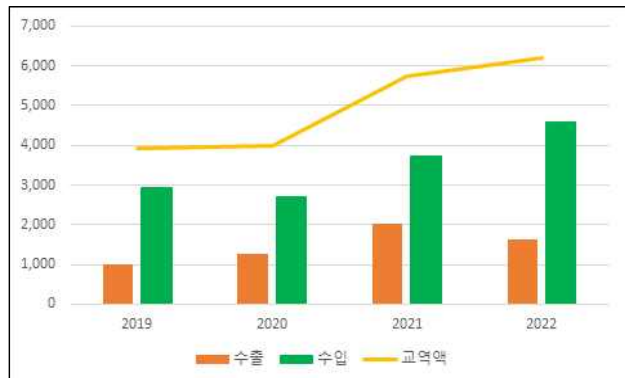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IU

[그림 21] 타지키스탄의 교역액 추이(2019~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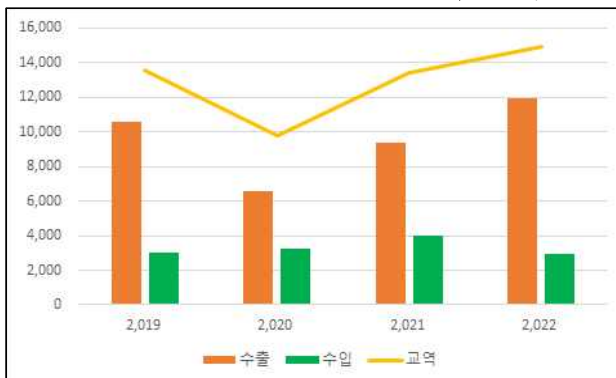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BOP

[그림 22]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액(2019~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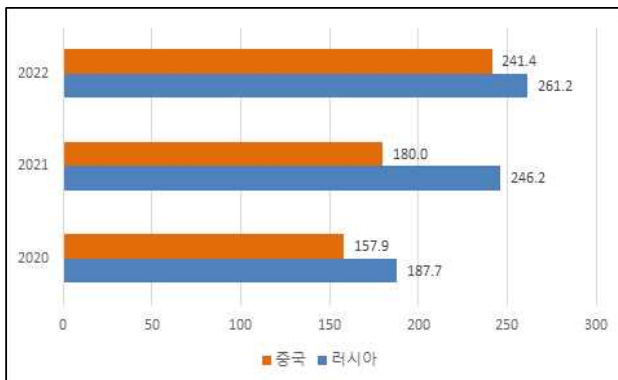
14) IMF BOP; EIU

3. 중앙아시아의 주요국과의 교역 변동

1) 대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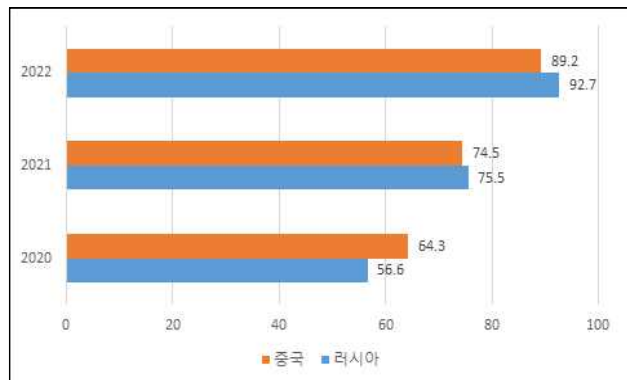
- 202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 러시아 교역액이 증가했으며, 카자흐스탄의 대 러시아 교역은 6.1% 상승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22.8% 상승했음.
 - 카자흐스탄은 대 러시아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였음. 우즈베키스탄은 수출이 20.9% 증가하고, 수입은 13.7% 증가했음.
 -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주요 경제국인 두 국가의 대러 교역에서 수출의 증가가 교역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 양국의 대 중국 교역도 증가했으며, 카자흐스탄은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우즈베키스탄은 수입이 크게 증가했음.

[그림 23]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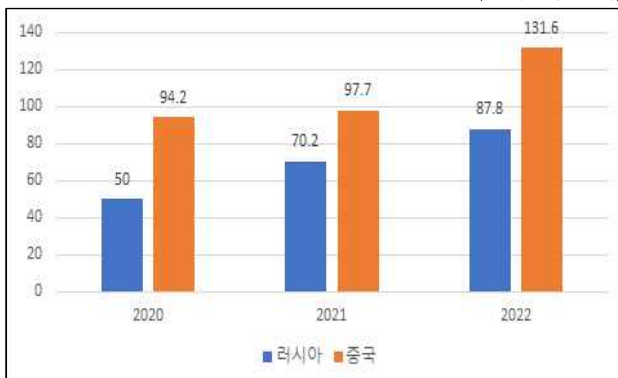
자료: <https://stat.gov.kz>

[그림 24] 우즈베키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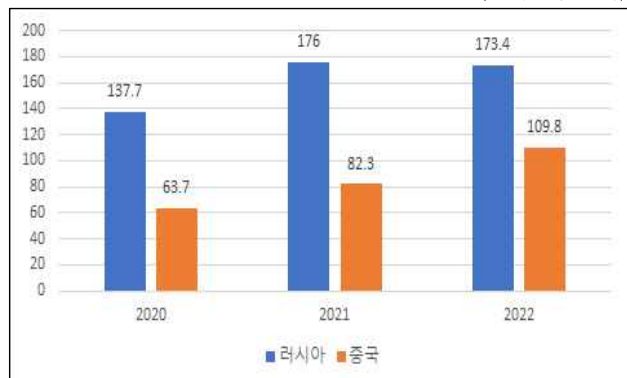
자료: <https://www.gazeta.uz>

[그림 25]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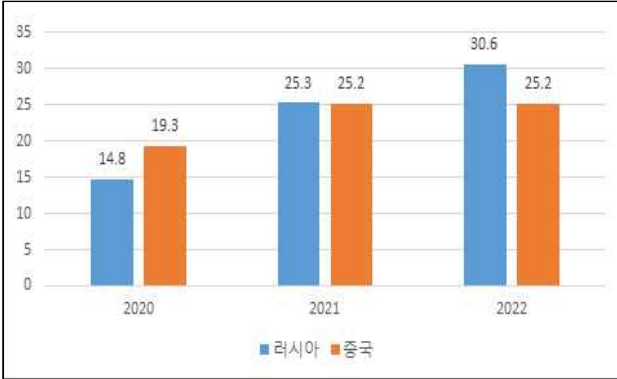
자료: <https://stat.gov.kz>

[그림 26]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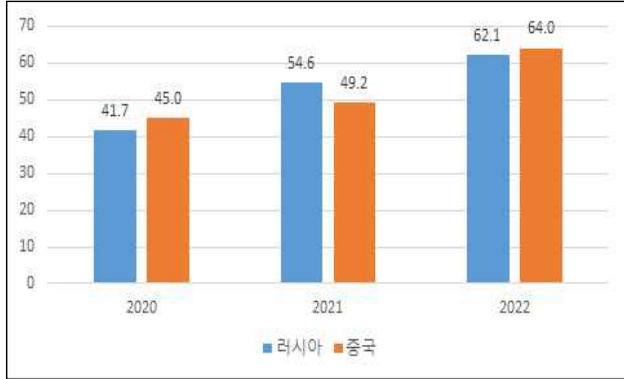
자료: <https://stat.gov.kz>

[그림 27] 우즈베키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https://www.gazeta.u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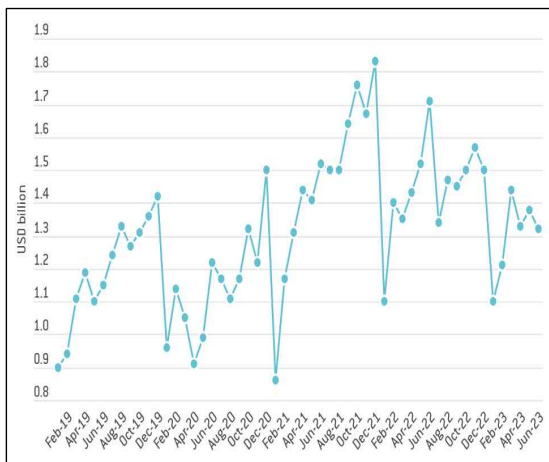
[그림 28] 우즈베키스탄의 대러시아, 대중국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https://www.gazeta.u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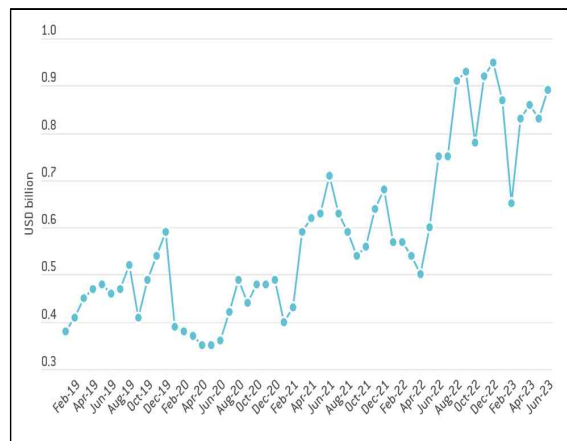
-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 수출이 증가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병행수입 제도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따른 자국 내 물품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급등을 우려하여 2022년 3월 30일 병행수입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병행수입 증가에 따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음.
 - 병행수입 제도의 시행에 따라 상품의 특허 및 상표권 보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독점 수입업자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들의 상품 수입이 가능해짐.
 - 이후 2022년 5월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의약품, 화장품, 악기, 기계 등 96개 항목에 이르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발표하였음.¹⁵⁾
-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대러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의 경우에서 이러한 측면을 볼 수 있음.
 - 우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교역의 증가에서 카자흐스탄의 수출 증가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그림 29] 러시아의 대 카자흐스탄 전자기기 및 부품 수입(2019~23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브뤼셀연구소

[그림 30] 러시아의 대 카자흐스탄 수입(2019~23년)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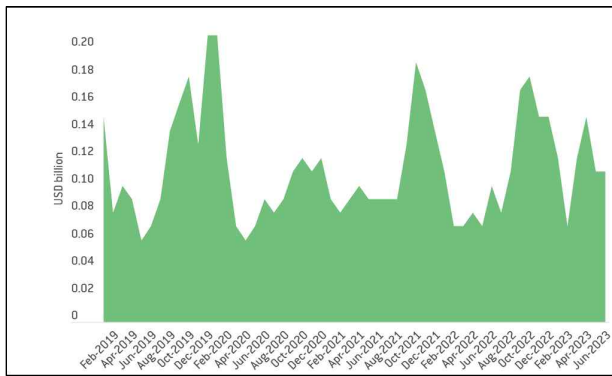


자료: 브뤼셀연구소

15) <https://vc.ru> (2022.5.6.)

[그림 31] 러시아의 대 카자흐 에너지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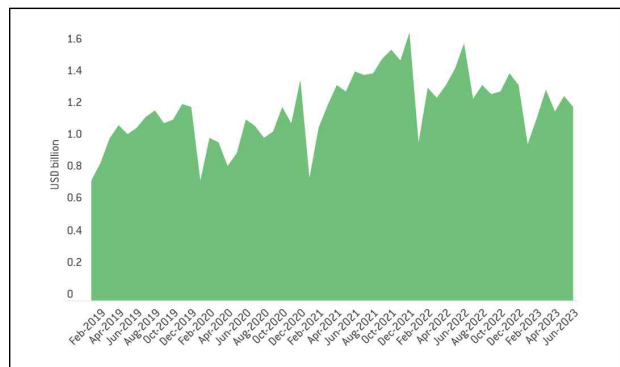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브뤼겔연구소

[그림 32] 러시아의 대 카자흐 에너지 이외 수출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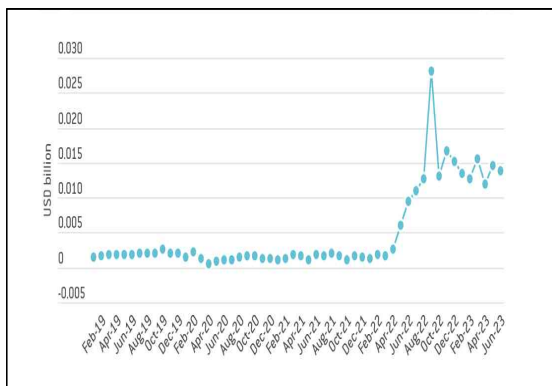


자료: 브뤼겔연구소

- 러시아의 대 카자흐스탄 수입에서는 자동화 기기, 장비, 전자기기, 통신장비 등의 증가가 많음.

[그림 33] 러시아의 대 카자흐스탄 자동화 기기 수입(20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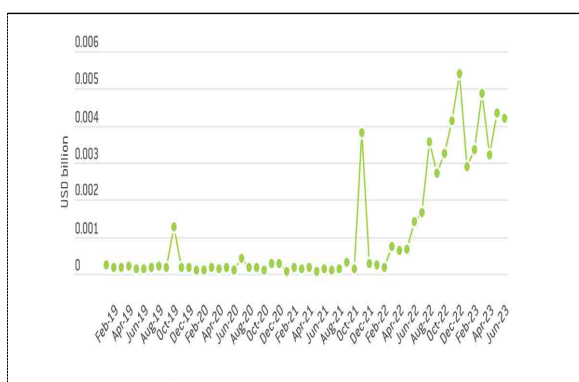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브뤼겔연구소

[그림 34] 러시아의 대 카자흐스탄 장비(레이저 등) 수입(20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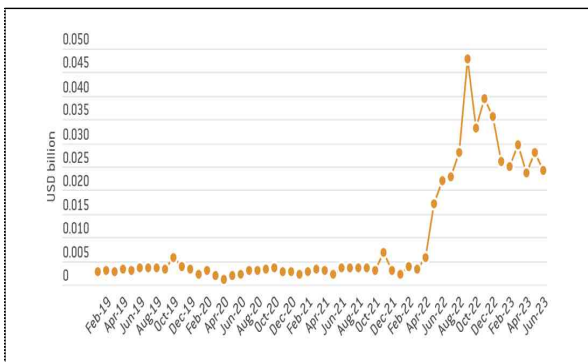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브뤼겔연구소

[그림 35] 러시아의 대 카자흐스탄 전자기기 및 부품 수입(20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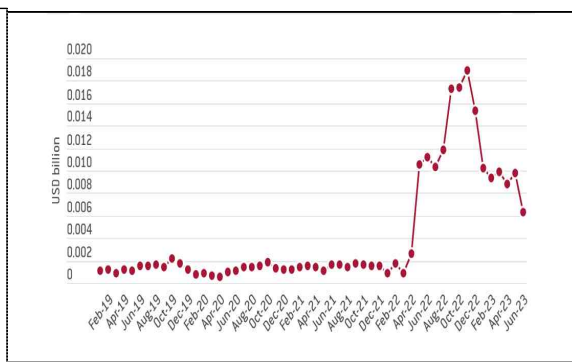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브뤼겔연구소

[그림 36] 러시아의 대 카자흐스탄 통신장비 수입(20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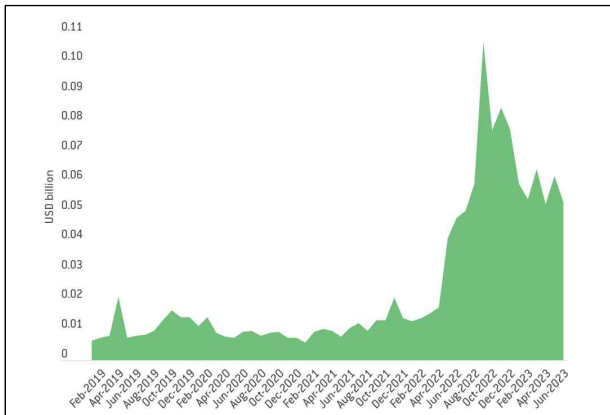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브뤼겔연구소

[그림 37] 러시아의 대 카자흐스탄 제재 대상품목 수입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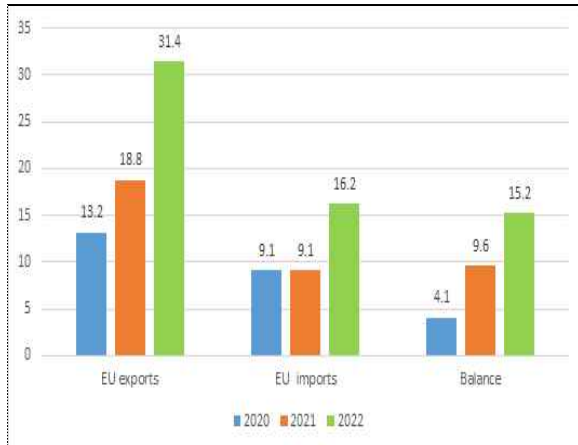
자료: 브뤼셀연구소

2) 대 EU

-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EU 간의 교역액이 증가하고 있음. 2022년 중앙아시아의 대 EU 교역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67%, 수입액이 78% 각각 증가하였음.
- 중앙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의 경우 EU와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29.9%로 수출의 34.6%, 수입의 20.9%를 점유하고 있음.

[그림 38] 중앙아시아의 대 EU 교역(2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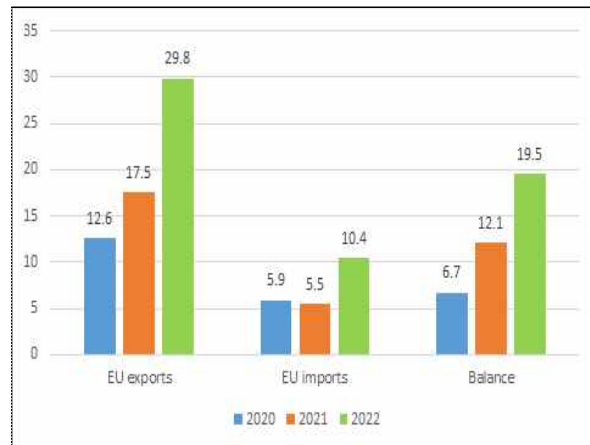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https://policy.trade.ec.europa.eu>

[그림 39] 카자흐스탄의 대 EU 교역(2020~22년)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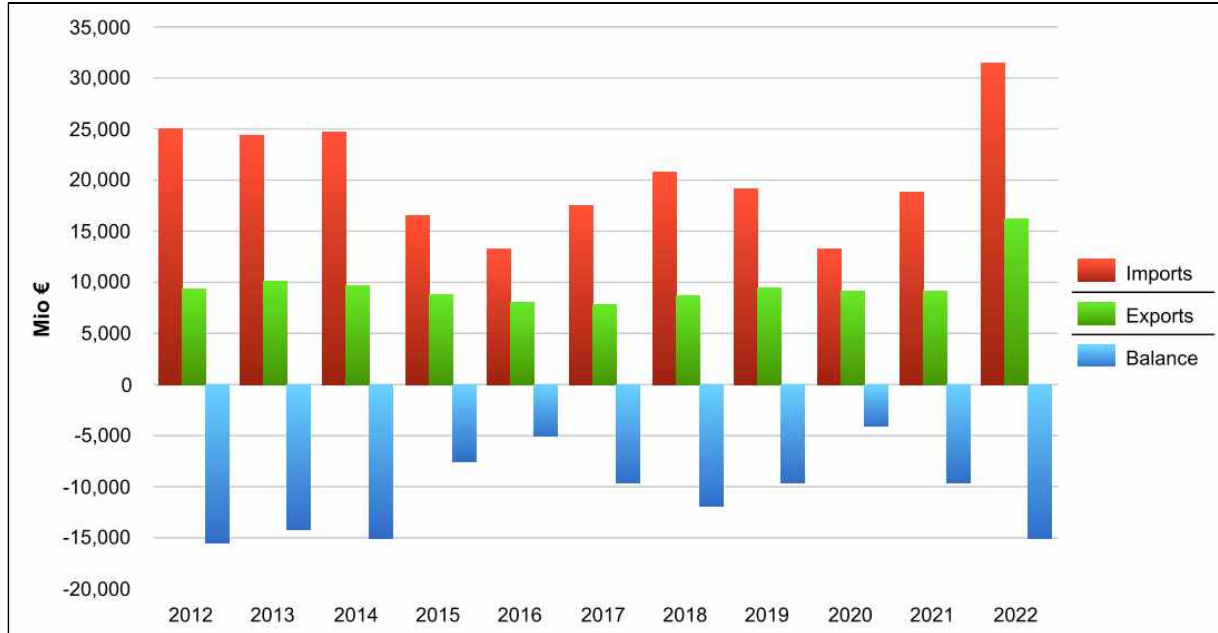


자료: <https://policy.trade.ec.europa.eu>

- 최근의 EU 교역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EU의 대 중앙아시아 교역이 크게 증가했으며,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2년에는 수입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0] EU의 대 중앙아시아 교역(2012~22)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U

- 2022년 중앙아시아의 대 EU 수출액이 314억 달러, 대 EU 수입액이 162억 달러를 기록함.
- 이는 2021년 대비 수출액이 126억 달러, 수입액이 70억 달러 증가한 것임.
- 전체 교역 증가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비중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2022년 중앙아시아의 대 EU 수출에서 카자흐스탄의 비중은 94.9%, 대 EU 수입에서 비중은 64.2%를 기록함.
- 2021년 대비 2022년에 카자흐스탄의 수출은 123억 달러 증가하여, 중앙아시아 전체 대 EU 수출증가의 97.6% 비중을 점유함.
- 2021년 대비 2022년에 카자흐스탄의 수입은 49억 달러 증가하여, 중앙아시아 전체 대 EU 수출증가의 69% 비중을 점유함.
- 이에 따라 2022년 대 EU 교역 증가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수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대 EU 수출 증가, 중앙아시아의 대 EU 수출 증가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수출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
- 2022년 서방의 대러 제재 상황에서 EU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증대하고 있음. 또한 카자흐스탄의 EU에 대한 석탄 수출도 증가하였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자원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EU에 대한 원유 수출증대는 카자흐스탄 정부로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12월 카자흐스탄 외무장관은 독일에서 개최된 독일 경제장관과의 회담에서 러시아를 대신하여 카자흐스탄이 독일로 원유를 공급할 수 있음을 밝힘. 카자흐스탄은 송유관을 통해 연 200만~500만 톤을 공급하고 추가로 선박을 통해 원유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카자흐스탄산 원유는 러시아를 통과하는 드루지바(Druzhba) 송유관이나 BTC 및 CPC 송유관과 선박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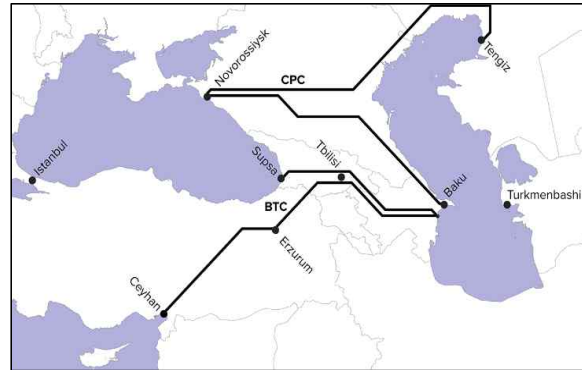
용하여 유럽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 있음.

[그림 41] Druzhba 송유관



자료: <https://www.spglob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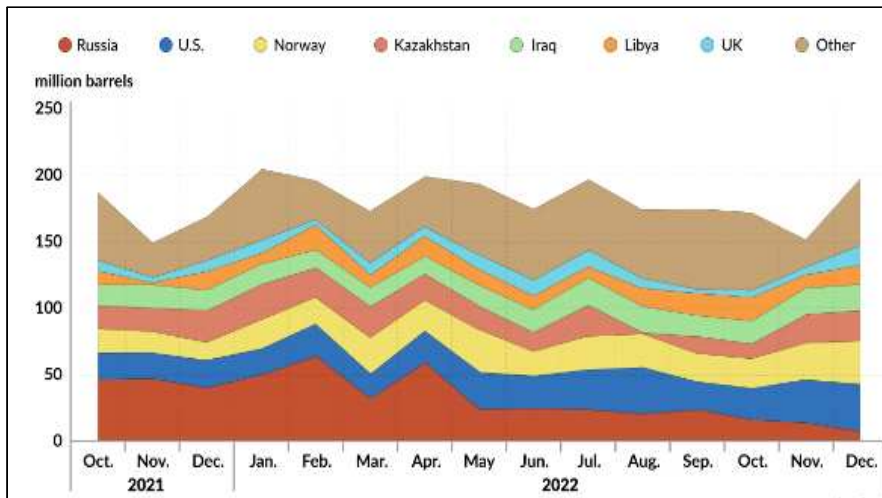
[그림 42] CPC, BTC 송유관



자료: <https://eurasianet.org>

[그림 43] EU의 주요 원유 수입상대국별 수입규모 추이

(단위: 백만 배럴)



자료: 브뤼셀연구소

- 또한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EU의 주요 우라늄 수입상대국이며, 향후 러시아산을 대체하여 EU에 대한 우라늄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6] 세계 주요 우라늄 생산국(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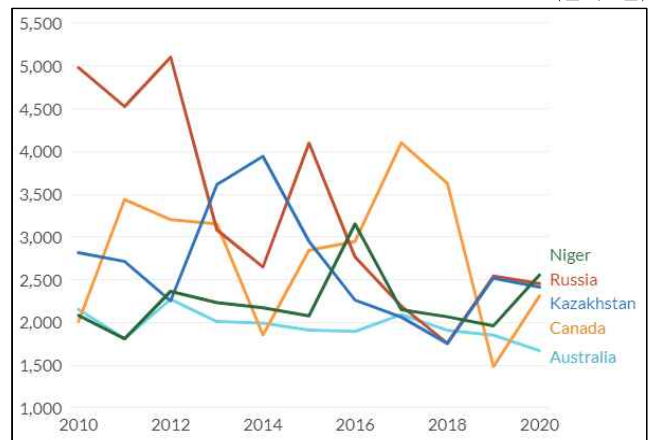
(단위: 톤)

국가	생산량
카자흐스탄	19,477
호주	6,203
나미비아	5,413
캐나다	3,885
우즈베키스탄	3,500
나이지리아	2,991
러시아	2,846
중국	1,885
우크라이나	744

자료: <https://www.gisreportsonline.com>

[그림 44] 대EU 5대 우라늄 공급국(2010~2020년)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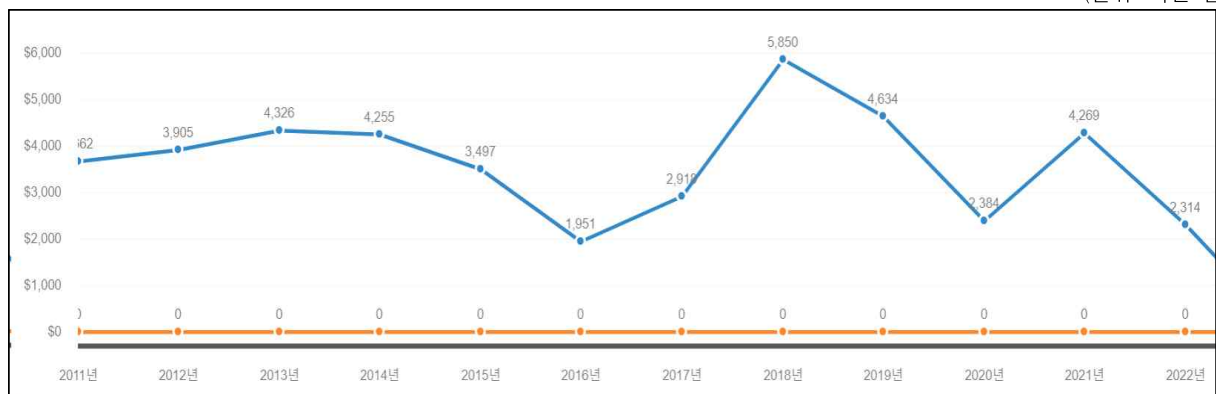
자료: <https://www.gisreportsonline.com>

4. 결론

- 202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받았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해 왔음.
 - 이러한 경제안정에는 중앙아시아의 대외교역 증대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전반적으로 에너지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였음.
 - 러시아와의 교역에서도 수출이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기계 및 설비, 전자제품, 컴퓨터 등의 수출이 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의 병행수입 제도 도입에 따라 외국 제품의 중앙아시아를 통한 우회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브뤼셀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EU는 러시아를 대체하여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증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중앙아시아와 EU의 에너지 교역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장기적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EU에 대한 가스 수출 증대도 전망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2022년 12월 유가상한제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중단되고, 다른 에너지 교역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증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미 2022년 한국의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 한국은 2014년부터 카자흐스탄산 원유 본격 수입, 2014년의 3.72억 달러(수입 상대국 순위 17위, 수입 비중 0.4%)에서 2022년 45.9억 달러 수입, 7위 수입상대국(수입비중 4.3%)으로 발전

[그림 45] 한국의 대러 원유수입 (2022년 10위 수입상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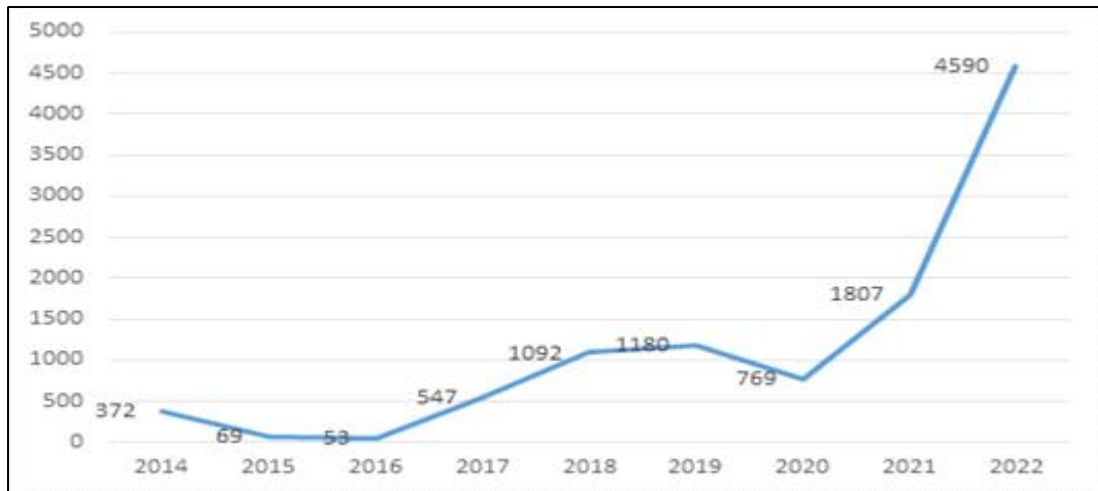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KITA

[그림 46] 한국의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2014~22)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KITA